# 大阪都構想과 시사점

지방행정연수원 홍진이

## 문 제 제 기

- 하시모토오사카부지사 효율적인 정책관리의 *어려움 호소(대대적인 재정개혁실시-3년간2441억엔의 세출삭감)*

**大阪都構想의 전면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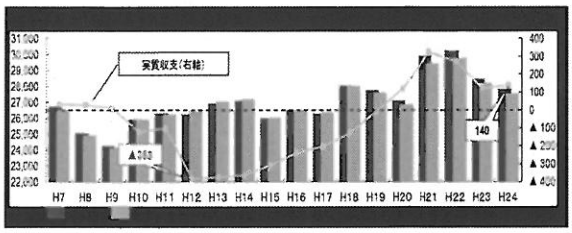
- 오사카부, 오사카시 동시선거에서 오사카도지지 동반 당선

-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시의회의 저항-재신임 선거
- 저조한 투표율/ 오사카도구상 다시 수면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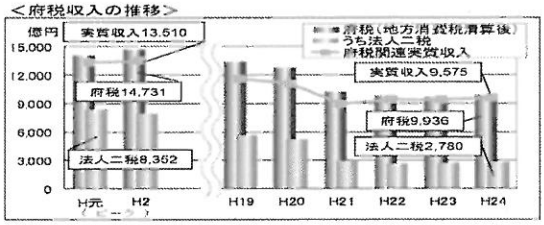
**橋下徹의 정치적 지지기반**

# 오사카부 재정구조

<오사카부 세입세출결산액과 실질수지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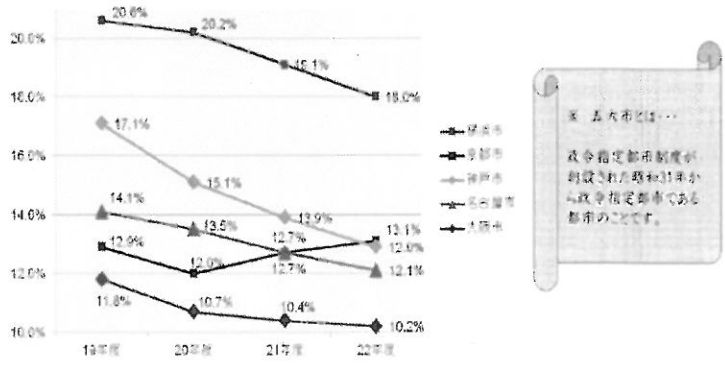



<府税収入の推移>




# 5大市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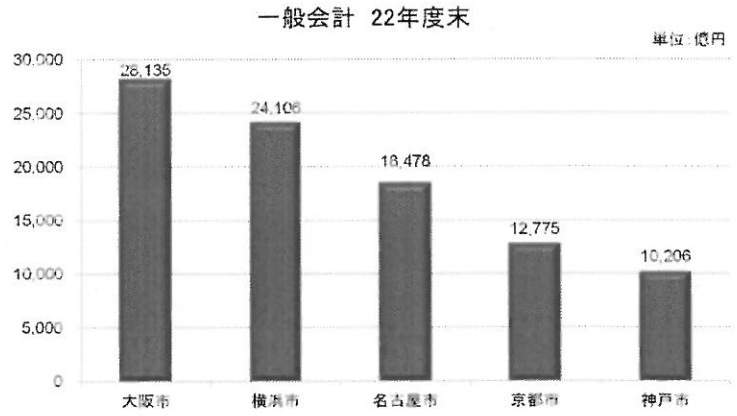
**実質公債費比率の推移**




※ 五大市とは・・・

政令指定都市制度が創設された昭和31年から政令指定都市である6都市のことです。

## 5대시 재정




## 오사카도 구상

❖ 오사카도 구상은 부와 시를 재편하여 광역행정의 도(都)로 이행하는 것이 주내용
- 오사카부(大阪府)와, 오사카시(大阪市),사카이시(堺市)의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을 폐지하고 새롭게 오사카도(大阪都)를 설치하는 구상-오사카시/사카이시의 지역 및 주변지역은 시가 아닌 특별구로 분할

❖ 한발 더 나아가 보다 더 넓은 관서주의 형성(도주제)까지를 염두에 둔 주장

❖ 사카이시시장선거의 패배로 사카이시 제외, 오사카시 24구를 5구로 재편하는 수정

## 오사카도구상의 연혁

- 2000년 당시 오사카부지사: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통합으로 오사카신도구상을 제안, 2001년<오사카부행재정계획>에 「大阪都」 최초 등장
- 2010년3월에 하시모토지사가 대표인 「오사카유신의 모임(大阪維新の会)」 행정구상으로 「오사카도구상(大阪都構想)」
- 2010년 4월,오사카부자치제도연구회발족:새로운 자치제도의 제안 및 대도시제도의모색
- 2011년7월, 오사카부의회에 <오사카부지역의 새로운 대도시제도 검토협의회>설치-유신의 모임견해로서 광역자치단체로서 '오사카도'와 기초자치단체로서 '특별구'의 역할분담을 통한 새로운 비젼제시
- 2011년 오사카시장/오사카지사더블선거-오사카시장의 임기만료로 선거실시, 오사카부지사인 하시모토 지사직 사임 오사카시장에 출마, 동반 당선-오사카도구상 실현가능성 고조

## 국회에서의 법개정

◆ 대도시지역 특별구 설치에 관한 법률공포

(대도시지역특별구설치법),2012년 8월29일가결 9월5일공포

- **특별구의 설치가 동경도에 한정되어있던 것을 타 도부현에도 가능하도록**
- **하시모토의 국회진출시 대립을 회피하기위한 각 당의 전략**

⇩

**오사카도 실현에 구체적 일보 전진**

## 특별구 설치를 위한 조건

- 특별구설치협의회에서의 협정서 작성
- 관계도부현 및 관계시정촌 의회의 승인
- 관계시정촌 주민투표에서의 찬성
- 총리대신의 설치에 따른 처분
- 인구요건
- 특별구를 설치한 도부현의 명칭-법개정이 필요
- 도의 명칭사용에 동경도의 명확한 태도
- 오사카이외의 정령지정도시의 동향
- 등등

## 오사카도구상의 장 / 단점

| 긍정적인 측면 | 부정적인 측면 |
| --- | --- |
| 이중 행정 해소의 제도화<br>(산업기반의 정비와 경제적 경쟁력강화) | 오히려 전체적으로 행정효율이 떨어지며<br>시책의 통일성을 꾀하기 어려워진다. |
| 구 공선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br>효율적인 행정서비스구현 (재정의 안정) | 도구간재정조정제도의 방법에 따라<br>특별구의 재원부족이 발생 가능성 |
| 수도기능을 검비재해발생시 부수도의 기능 | 주변도시의 역사 및 주민의 애착 등이 훼손 |
| 광역적 관점에서 관서공항으로의<br>접근성 ,철도의 고속화등 도시인프라 정비 | 의원 및 의회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이 소요 |

# 오사카도 유사 개혁안

**특별자치시**

•2층제구조 폐지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자치시를 동격으로 하는 새로운 대도시제도

**오사카분할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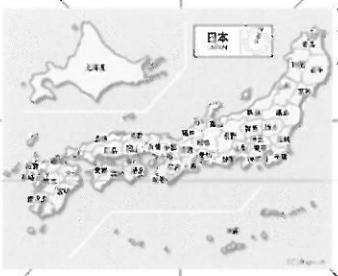
•오사카시를 특별구가 아닌 8~9개의 보통시로 분할

•재정격차에 따른 문제

**오사카광역전략협의회**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사카이시의 광역과제를 협의하기위하여 조례로 제정

•도주제실현의 전제




**특별시운동**

•5대도시를 특별시로 부현으로 독립하는 제도

•정령지정도시 도입

**대도시권주구상**

•하시모토오사카도구상에 대항하는 오사카시 히라마츠시장의 대도시주장 유전자복제성공

•찬반논쟁치열

# 大阪都構想의 시사점

▪ 오사카도구상은 오사카부의회 의석에서 유신소속 의원이 49명으로 과반수52명에 이르지 못해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 | |
|---|---|
| 지방으로부터의 개혁 | 중앙정부주도가 아닌 지방으로부터의 개혁으로 지방분권의 방향성과 이슈를 스스로 제시-도주제로의 연계 |
| 새로운 도시재생 | 도시가 자율개혁을 시작하지 않는 한 국가도 지방도 모두 파산한다는 공감대의 형성-도로등 인프라 투자로부터 진정한 삶의 안심으로 이어지는 라이프 인프라로의 전환 등 주장(慶應大 上山信一교수) |
| 변화와 혁신의 추구 | 오사카도구상에 찬성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에 동조하고 있으며 종래의 무당파층 다수가 지지 |
| 일국일제도에서 일국다제도로 | 메이지유신이래 140년간 지속되어온 일본의 일국일제도를 일국다제도를 바꿔 도시의 자율적 영역과 재량권을 넓혀 다원화 사회로의 전환 |
| 지방의 독자 정치 세력화 | 이시하라동경도지사 (石原慎太郎 東京都) 히가시고쿠바라 전 미야자키현지사 (東国原英夫 宮崎県) 카와무라 타카시 현나고야시 (河村高し 名古屋市) 오오무라 히데아키 현 아이치현지사 (大村秀章 愛知県) 폭넓은 지지계층을 확보, 중서부 2부5현을 중심으로 정치세력 결집 |

## 종합적 평가

「오사카도」 구상은 지금의 도쿄도(東京都)가 도쿄부(東京府)와 도쿄시(東京市)의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선례가 있으며 오래 전부터 일본 내에서 주창되어온 道州制와도 연계되어있으며 유사 개혁안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 중요한 것은 지방에서 이러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오는 점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일 것이다.
일본에서의 1990년대에서 2000년에 걸친 일련의 지방분권 흐름 속에서 재정적인 의미에서의 지방분권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어느 정도 전진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오사카도구상과 관련해서는 지방의 통치를 위한 자율적 의사결정으로의 분권이라는 측면이 엿보인다.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전전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져 왔으며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 운영형태, 폐치분합등에 관해 세세히 제한을 두고 있어 「통치의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오사카도구상을 계기로 이러한 제약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0년대 지방행혁을 이끌어온 혁신자치단체장들이 재등장할 수 있는 여건으로 작용할지 지켜볼 일이다.

## 橋下徹?

1969년생으로 변호사겸 탤런트, 오사카부지사를 사임하고 오사카시장으로 출마하여 기존 정당들이 연합하여 지지한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하였다. 보궐선거의 성격을 가졌음에도 투표율이 60.92%로 지방선거에서 단연 높은 투표율이었다. 그만큼 하시모토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이 팽배되어 있다는 반증으로 하시모토가 일본 내에서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된 선거였다. 하시모토는 일본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하시모토의 위안부관련 발언, 재일주둔 미군의 풍속업 장려, 크고 작은 실언이 뉴스에서 소개되기도 하였다.

# 최근의 일본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법개정안>

정령시의 기능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본정부가 현 국회중 성립을 목표로 제안한 법안

현행의 행정구를 '총합구'로 격상하여 구직원의 인사권 및 예산요구권한을 확대한 특별직의 '총합구장(總合區長)'을 두는 것과 도부현과의 이중행정해소를 위해 <조정회의>를 설치하는 것 등이 담겨져 있다. 전체 정령시를 대상으로 조정회의의 설치는 의무이나 총합구 및 총합구장의 설치는 각시의 임의판단에 맡겨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사카도구상은 탄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